



空士總同窓會報

發行人：朴 鎔 泰

編輯人：姜 容 求

(住所)：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新吉 7洞 1178番地 (郵便)：150-057 (電話)：02-845-1090 (FAX)：02-845-1091 (非賣品)

취 임 사

5代會長就任

먼저 空軍士官學校同門, 先輩, 同僚, 後輩 여러분의 健勝과 幸運을 祝願드립니다. 지난 6월 18日 空軍士官學校 總同窓會(星武會) 定期總會에서 不徳非才한 저에게 總同窓會會長職을 맡겨주신데 대해 저 個人的으로는 큰 榮光으로 생각하나 同窓會를 活性化시켜야 할 重且大한 時期에 제가 감당키 어려운 莫重한 責務를 맡게 되어 걱정이 앞서고 惴惴스러운 마음뿐입니다.

回顧해 보면 空軍士官學校 總同窓會(五星會)는 維新政府 出帆以後 1993年 再建되었으며, 지난 '97年 6月 定期總會에서 이름은 五星會에서 星武會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同窓會 再建과 發展을 위해 歷代 會長님들의 勞苦에 衷心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리며 前任 會長님들께서 이룩해 놓으신 業績을 繼承發展시키는데 微力이나마 渾身の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母校인 空軍士官學校는 1949年 6月 1日

第1期 士官入校를 契機로 開校한 以來 今年 3月 第45期 士官이 卒業함으로써 總 6,000余名의 卒業生을 輩出하게 되었습니다. 同窓會 同門들은 祖國 領空守護와 航空宇宙科學 發展 및 航空産業育成의 尖兵으로써 國家安保와 繁榮에 至大한 貢獻을 했다고 自負합니다.

우리 空軍은 近來數年間 우리 近代史의 激動期를 맞이하여 一部 軍人들이 政治一線에 나섰을 때 政治權력을 탈내거나 그들과 迎合함이 없이 오직 軍本然의 任務에만 忠實했으며, 다가올 새로운 航空宇宙時代의 主役으로서 오직 領空守護와 國家産業發展 및 科學技術發展의 召命完遂에만 專心全力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 同門들이 國家安保와 繁榮을 위해 寄與했던 功績을 認定받고 爲國獻身の 길만을 걸었던 우리의 崇高한 思想과 價値를 尊重받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제가 1988年 第2民航 아시아나航空 創設에 參與하여 일하던 때에 KBS



朴 鎔 泰(공사 5기)

- 空軍豫備役 少將
- 아시아나항공 상임고문

저녁 7時 뉴스에 出演하여 第2民航의 經營方針에 대해 說明할 수 있는 機會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生放送對談이 始作되기 전, 이미 編譯된 뉴스가 放映이 되고 있는 틈을 利用해서 放送을 進行하고 있던 女子앵커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女子앵커가 저에게 "아시아나航空 創設을 맡아 일을 하기 전에는 무슨 일을 했느냐?"는 질문을 하기에 "空軍에서 33年間 戰職機

操縦을 했다."고 對答했더니 "將軍으로 豫編했느냐?"고 다시 물기에 "그렇다"고 對答했습니다. 女子앵커가 하는 말이 "空軍將軍을 만나보니 他軍將軍을 만난 때와는 달리 왠지 前日 拒否感이 안 생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驚색을 하면서 "우리 空軍은 오직 祖國領空守護의 軍本然의 任務完遂에만 盡力해 왔는데 國民들이 우리 空軍을 某軍의 一部 政治軍人과 同一視해서 蔑視한다면 매우 섭섭하다.

우리가 政治權력과 迎合하지 않는 것은 能力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軍人은 國防任務에만 專念해야 한다는 確固한 信念과 崇高한 價値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난 女子앵커는 "듣고보니 정말 우리 空軍이 자랑스럽고 尊敬해 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至今 우리가 해야 할 일은 一部 軍人의 政治參與로 失墜된 軍의 名譽와 威信을 回復하고, 우리 空軍은 깨끗하고 씩씩

하며 나아가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必勝空軍이요, 모든 일을 合理的으로 處理하는 紳士空軍이며 恒常 國民의 편에서 싸우는 國民의 軍隊라는 傳統의 이미지를 다시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實現시키기 위해 우리 空軍同門들이 앞장서야 하며, 이 일을 組織的이고 體系의으로 推進하기 위해 空士同窓會를 活性化시키는데 全同門들이 뜻과 智慧를 한데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一年間 짧은 期間이나마 同窓會를 活性化를 위해 同窓會會報 發刊, 不遇한 同門 遺子女을 위한 獎學事業推進, 謝恩行事, 全會員을 招請하는 定期總會 등의 行事を 開闢하여 會員 相互間의 親睦을 圖謀하고 友誼와 親睦을 돈독히 하는데 온 힘과 精誠을 다 바치겠습니다.

同門여러분들께서도 同窓會에 더 많은 關心과 愛情을 가져주시고, 同窓會 活性化에 積極參與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同門 여러분의 同窓會 活性化를 위한 高見과 指導를 부탁드립니다. 家庭에 幸運이 充滿하시기를 祈願합니다.

星武台

有備無患精神 切實

80년대 중반부터 동구권이 몰락하고 '89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70여년 동안 지구의 악령(惡

靈)으로 존재하던 공산주의는 인류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탄쟁 전 시대를 열었는데 유독 북한의

김부자(金父子)만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집하면서 북한을 지옥으로 돌아 넣었다.

지난 달 22일 방영된 KBS '일요스페셜'은 북의 지옥같은 참상을 방영했다. 그곳은 '노동자의 천국'이 아니라 김정일을 비롯한 당간부들을 제외한 인민의 죽음을 현상이었다. 젊은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어린이들, 이미 죽은 사람들의 원혼이 떠도는 생지옥이다. 이것이 김부자가 만들었다는 노동자 농민의 천국이다.

이 기막힌 장면을 보면서 가없는 북한 풍포에 대한 한없는 연민의 정과 북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북체제 지배자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수많은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백성들은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하고 있는데도 백만명이 환신 넘는 인민군 유지와 김일성의 시신을 안치한 금수산 기념공전의 치장을 위해

수억달러를 들였고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쿠비의 세계 청소년 축제에 대대적인 대표를 보내 체제 선전에 나선다고 한다. 결양에서 전세계 두 대를 동원, 5백명을 파견하는 것을 비롯, 남한 한층원의 참가를 적극 충동할한다하니 김정일은 정말로 정신이상자이다.

북한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은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하기 힘들게 너무나 많다. 16일 인민군 14명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전례없는 포격까지 하기도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지 및 천배 보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완강협세를 암살하겠다는 테러범 3명을 국내에 잠입시켰다는 정보도 있다.

완강협 비서의 증언을 통하여 북한의 속셈이 확실하게 확인되었으니 이제라도 감성적 불인론이나 안보 실감증에 젖어 북한의 무력남침을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김정일 정권을 개방과 개혁으로 이끌어 북한 동포를 기아에서 구하고 지구촌 사람들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구가하며 평화통일을 이룩해서 자손만대에 번영을 이룩해야 하겠다.



母校의 名譽를 빛낸 韓弼淳 博士

韓弼淳 博士는 1933年 2月 20日 平南江西에서 出生하여 6.25 戰爭 勃發前까지 以北에서 高等學校를 다니다 戰爭中에 아버님을 모시고 越南하여 1953年 3月 空軍士官學校 第5期로 入校했다. 그는 士官生時節 冊 읽기를 좋아하여 讀書狂이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士官學校 圖書館에 備置된 原子力에 關한 冊은 한卷도 빠짐없이 다 읽었다. 週末이 되면 大部分의 生徒들이 딱딱하고 嚴格한 規律 生活로부터 一時나마 解放이 되기 위해 外出하는 것이 唯一한 樂이었으나 韓弼淳 生徒는 外出보다 圖書館에 남아 책 읽기를 더 좋아했다. 同期生들은 그가 將次 韓國科學界의 巨木이 될 것이라고 믿고 그를 韓弼淳 生徒라고 부르기도 했다. '닥터 한'이라고 즐겨 불렀다.

士官生 2學年 在學 중 여름 휴가를 앞두고 夏季特講이 있었다. 그때 서울 大學校 物理學科 교수이신 권영대 박사께서 '核分裂의 連鎖反應'에 대한 講義를 해주셨다. 권영대 교수께서 칠판에 아주 複雜하고 긴 數式을 한참 읽어 나가는데 韓弼淳 生徒가 일어나 教授님이 풀어놓으신 數式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核分裂의 連鎖反應에 關한 數式은 아주 複雜하고 次元 높은 學問이기 때문에 聽講하고 있던 士官生들은 勿論 當時 士官學校 教官들마저도 數式을 理解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므로 韓弼淳 生徒의 당돌한 行動을 모두 疑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권영대*교수는 士官生徒가 理解하기는 너무 어려우니 그저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 달라고 했다. 그러나 韓弼淳 生徒는 물러서지 않고 執拗하게 數式의 誤謬를 指摘하자 教授님은 한참 동안 檢算을 해보고 난 다음 자신의 잘못을 承認하고 謝過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 해프닝이 因緣이 되어 韓弼淳 生徒는 空軍士官學校 士官學校 文理大 物理學科에서 권영대 교수의 指導하에 核物理學을 專攻하게 되었다. 한 박사가 서울 大學校에서 工夫할 때 學業成績이 그의 追從을 不許할 程度로 卓越하게 모두들 부러워했다고 하며 한편으로 空軍士官學校의 學問研究水準이 이렇게 높을 수가 있는가 해서 놀랐다고 한다.

그 후 美國에 留學하여 1964年 6월에 일리노이 大學에서 物理學 碩士學位를 授與받고, 1969年 9월에 캘리포니아 大學에서 物理學 博士學位를 授與받음으로써, 士官生 時節 '닥터 한' 이 名譽공히 韓弼淳 博士가 되었다.

韓 博士는 客觀的인 自然現象을 分析하고 研究하는 物理學者로서 오직 學問에 대한 熱情이 남달리 強했으며 母校인 空軍士官學校에서 30여년간 物理學 教授로 在職하면서 後輩들을 가르치는 일에 情熱을 바치기도 했다. 그 후 國防科學研究所로 자리를 옮겨 '레이저 研究室長職'을 맡아 自主國防을 爲한 武器 國產化에 도 크게 貢獻한바 있다.

1982年 韓 博士는 國防科學研究所로부터 韓國原子力 研究所 大德工學센터 分所長으로 赴任하

면서 原子力界와 첫 因緣을 맺게 되었다. 1984年 그는 韓國 原子力 研究所長으로 就任하여 1991年 所長職을 물러날 때까지 韓國 原子力 研究所를 國內 頂上級 研究 機關으로 育成發展시켰을 뿐만 아니라 國際의으로도 實力을 認定받는 世界的인 研究所로 跳躍시키는데 決定的인 役割을 했다.

科學者들은 1980年代를 韓國 原子力 技術自立的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부른다. 한 박사는 바로 이 時期에 韓國 原子力 研究所 所長으로 在職하면서 '에너지 自立的인 國家經濟發展의 꿈을 實現할 수 없으며, 原子力 技術 自立的인 에너지 自立的을 具現할 수 없다.'는 透徹한 使命意識을 가지고 原子力 技術自立的을 實現하는데는 情熱을 다 바쳤다. 한 박사는 한 나라가 競爭이 치열한 世界舞臺에서 自主的으로 生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自立化가 무엇보다도 重要한 先決課題이며, 우리나라는 에너지 資源 貧乏國으로 原子力 技術의 自立을 통한 에너지의 安定的 確保가 國家經濟發展을 뒷받침하는 重要한 當面課題일 뿐만 아니라, 國家安保次元에서도 絕對的인 命題라는 굳은 信念과 哲學을 가지고 研究所 部下職員들을 啓動했다. 當時 韓國 原子力 研究所에서 같이 일했던 後輩科學者들은 그를 우리나라 原子力 發電 技術自立的을 實現한 先學者로 愛國者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韓 博士는 原子力 發展에 所要되는 核燃料製造 技術의 自立을 成功시켰으며 또 原子爐 系統設計의 國產化를 이룩하여 韓國型 原子爐 開發의 基盤을 構築하는데 커다란 業績을 남겼다. 萬若 그때 韓國型 原電 開發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에너지의 海外 依存度는 深化되어 우리나라 경제가 오늘날과 같이 飛躍的인 高度成長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疑問시 되며 北韓에 輕水爐 原電을 提供하는 KEDO 프로젝트에도 우리는 돈만내고 原子爐는 外國것을 가져다 設置할 수밖에 없는 悲慘한 狀況이 되었을 것은 明若 觀火한 일이다. 1980년대는 美國이 韓半島에서 핵 개발을 阻止하기 위해 北韓뿐만 아니라 南韓에 대해서도 監視를 強化하고 있던 時期였으므로 韓國 原子力 研究所를 韓國에너지연구소로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는 어려운 狀況이었다. 이와 같은 어려운 與件하에서도 韓 博士는 에너지 自立을 위한 原子力 發電 技術 開發의 執念을 포기하지 않고 獨自인 韓國 原子力 發電 技術 開發에 心血을 기울인 結果 우리나라 科學界에 原電 技術 自立이라는 큰 足跡을 남기게 되었다. 韓 博士는 韓國 原子力 研究所에서 開發한 獨自의 核燃料 製造 技術을 바탕으로 韓國 最初로 核燃料 株式會社(現 韓電 傘下 韓國原電燃料株式會社 前身)를 創設하고 社長職을 맡았다. 그는 卓越한 經營 能力과 優秀한 技術力을 發揮하여 會社를 堅實한 盤石위에 올려놓음으로써 最高經營者로서의 資質도 認定받게 되었다.

또, 韓 博士는 原子力 技術 研究 開發의 國際協力을 增進시키기



韓 弼 淳 博士(공사 5기)

위해 美國,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日本, 호주 등의 原子力 研究 機關 및 事業體와 相互協助體制를 構築하고 共同利益을 위해 相互技術交流와 共同 研究活動에 心血을 기울임으로써 國際의으로 우리의 原子力 技術能力을 認定받는데 크게 貢獻했다. 韓 博士는 그間 原子力 發電 技術 自立化에 寄與한 功勞로 政府로부터 國民勳章 모란장을 비롯한 많은 勳章과 表彰을 받으며, 原子力 技術의 國際協力에 이바지한 業績이 認定되어 프랑스 政府로부터 '레지옹 드뇌프' 프랑스 最高勳章을 받았다.

1991年 말 韓國 原子力 研究所 所長職에서 물러난 韓 博士는 2年

間 英國 옥스포드 大學에서 地球 環境 問題를 研究하고 歸國한 후 未來 에너지 問題, 食料問題 그리고 地球環境保存問題 등 未來에 대한 信念과 情熱을 가지고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그는 遊甲이 넘고 이제 古稀를 바라보는 老齡에도 不拘하고 젊은이 못지 않은 健康과 情熱을 維持하고 있으며, 最近에는 株式會社 가이아(GAIA : 희망신화에 나온 地球女神의 이름=하나밖에 없는 지구의 生命力을 永遠히 保存하자는 뜻)를 設立하고 우리나라의 고질적 病廢인 飲食 쓰레기를 處理하는 機械를 만들어 供給하는 事業家로 變身하여 熱心히 일하고 있다. 이 事業은 地球環境保存次元에서 매우 바람직스럽고 時宜適切한 사업이다.

韓 博士는 學問 研究에 남다른 熱誠을 가지고 끊임없이 研究하는 科學者요, 韓國 原子力 研究所 所長職을 맡아 에너지 自立化를 實現한 最高경영자요 또, 未來 地球 環境 保存을 實踐하는 事業家로서 끊임없이 挑戰과 應戰을 계속하고 있다. 그의 先見과 未來에 대한 正確한 豫測, 執念과 勇氣, 그리고 組織의 이고 論理的인 思考力에 바탕을 둔 卓越한 經營能力은 새로 始作한 事業도 반드시 大成시킬 수 있을 것으로 確信한다.

나는 韓弼淳 博士와 같은 훌륭한 科學者요 先學者가 空軍士官學校 出身이라는 點을 자랑으로 생각하며 그가 母校의 名譽를 빛내준데 대해 深甚한 感謝와 敬慕를 表한다.

(5期 朴鎔泰 記)

※ 약 력

- 1953. 4. ~ 1957. 4. 공군사관학교졸업(이학사)
- 1957. 4. ~ 1960. 3. 서울대학교 물리학(이학사)
- 1962. 6. ~ 1964. 6. (미) 일리노이대 물리학(이학석사)
- 1966. 9. ~ 1969. 9. (미) 캘리포니아대 물리학(이학박사)
- 1960. 4. ~ 1970. 8. 공군사관학교 물리학교수('62-주임교수)
- 1970. 8. ~ 1982. 3. 국방과학연구소('80-사업단장)
- 1982. 3. ~ 1984. 4. 한국에너지연구소 대덕공학센터 분소장
- 1984. 4. ~ 1991. 5.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7~10대)
- 1983. 6. ~ 1990. 12. 한국핵연료주식회사 사장(겸직)
- 1987. 8. ~ 1989. 8. 한국원자력학회 회장(10대)
- 1984. 5. ~ 1987. 5. 한국전력(주) 이사
- 1991. 5. ~ 1997. 3.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위원
- 1997. 4. ~ 현 재. (주)가이아 대표이사
- 1971. 10. 국방부장관 표창
- 1973. 10. 대통령 표창
- 1976. 8. 국방과학상(은상)
- 1976. 10. 보국포장
- 1981. 9. 산업포장
- 1986. 4. 국민훈장 모란장
- 1992. 4. 프랑스 레지옹·도뇌르 명예훈장

同窓會에 關한 消息들

5次年度 任員 改編

· 會 長 : 朴 鎔 泰(57기)
 · 常任副會長 : 全 春 雨(67기)

期	副會長	理 事			
1	趙長成	金正麟	金舜經	崔奎淳	
2	吳世一	金泰哲	邊善基	李文煥	
3	孔思彥	蘇明沃	宋明憲	崔玄圭	
4	金在玠	申東滿	李相俊	鄭樂永	
5	朴容稷	成甫慶	李源筍	崔泓善	韓弼淳
6	全春雨	朴根泰	李潤雨	許恒茂	李秀烈
7	金俊洙	姜榮植	朴泰煥	吳世昌	崔盛大
8	趙顯孝	任炯栢	張正孝	金恩泳	金道植
9	朴鍾權	權赫達	愼都範	崔一永	
10	李秀吉	金漢龍	金在達	金祥海	金萬圭
11	許次凍	閔泳一	洪仁基	韓萬成	明英男
12	裴基俊	鄭敏男	金大禹	金英雄	李富庸
13	文基喆	김양수	李鍾大	柳根宇	李起炫
14	朴鍾誥	金世榮	韓龍吉	韓正九	閔信雄
15	朴邦弘	柳成泰	李聖德	權基東	엄익준
16	주창성	姜哲洙	李殷陽	이상렬	金信興
17	宋大成	魚賢淵	俞賢俊	張基善	鄭求鎬
18	鄭源泰	金賢圭	趙南洪	高正勳	尹在勳
19	片世榮	金福萬	丁成鎬	庾炳權	전제구
20	金永柱	李四龍	韓俊洙	崔秀信	김호동
21	朴京石	鄭東熙	金泰煜	황사홍	
22	崔武烈	孫重烈	宋錫鳳		김수준
23	鄭敬模	姜熙昌	崔斌弘	金炳昌	金永根
24	金益慶	金明翼	羅才男	李雄相	鄭南珠

· 監 事 : 李 炳 稷(57기)
 · 事務總長 : 姜 容 求(67기)

平生會費制 施行

우리는 젊음을 하늘에 바치고 나이들어 사회에 나와 나름대로 나라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星武派 空士人으로서 명예와 자부심을 갖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간에 맺어온 동문의 인연을 보다 값지게 하기 위해 동문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복지를 향상시키고 母校와 母校의 발전을 도우려고 공사총동창회를 再建하여 힘찬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年輪이 짧아 基金이 微弱한 실정이나 다행히도 그간의 회장님들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5천여만원이 積立되었습니다.

한두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기금 조성이 힘들어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전동문이 힘을 모아 의무적으로 회비를 낼 때 목표달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平生會費制度를 마련하여 1인당 10만원을 納付하도록 會則 第21條에 明示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平生會費制度를 알지 못해서 납부치 못한 동문들께서는 그 참 뜻을 認知하시고 넓은 雅量으로 理解하시고 적극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星武派人은 영원한 空士同門입니다. 이것은 이 時代를 살아 가면서 명예와 자긍심을 가져도 될 것입니다. 지난날 하늘을 지켰던 역전의 보라매답게 또다시 總同窓會 發展을 위해 남은 情熱을 불태워 봅시다.

구좌 : 372-01-045195(조흥은행 공사총동창회)

平生會費納付 現況

△ 白 慶 煥 (1기) 10만원	△ 朴 根 玉 (2기) 10만원
△ 姜 泰 煥 (1기) 10만원	△ 金 暇 泰 (2기) 10만원
△ 金 舜 經 (1기) 10만원	△ 張 孝 洙 (2기) 10만원
△ 金 永 洙 (1기) 10만원	△ 유 수 호 (2기) 10만원
△ 金 龍 洙 (2기) 10만원	△ 高 永 植 (2기) 10만원
△ 金 龍 洙 (2기) 10만원	△ 邊 滄 基 (2기) 10만원
△ 文 國 珍 (2기) 10만원	△ 柳 志 煥 (2기) 10만원
△ 吳 世 一 (2기) 10만원	△ 정 진 태 (2기) 10만원
△ 朴 文 基 (2기) 10만원	△ 高 承 萬 (3기) 10만원

△ 金 慶 福 (3기) 10만원	△ 李 康 柱 (10기) 10만원
△ 金 仁 基 (3기) 10만원	△ 李 泰 植 (11기) 10만원
△ 沈 燮 燮 (3기) 10만원	△ 李 東 煥 (11기) 10만원
△ 李 完 龍 (3기) 10만원	△ 李 東 男 (11기) 10만원
△ 嚴 植 植 (3기) 10만원	△ 李 潤 植 (11기) 10만원
△ 李 奎 赫 (3기) 10만원	△ 李 承 五 (11기) 10만원
△ 曹 博 賢 (3기) 10만원	△ 李 梁 亨 (11기) 10만원
△ 趙 沼 夏 (3기) 10만원	△ 한 고 식 (11기) 10만원
△ 金 震 燮 (3기) 10만원	△ 朴 春 澤 (12기) 10만원
△ 張 恒 基 (3기) 10만원	△ 裴 鍾 俊 (12기) 10만원
△ 崔 景 永 (3기) 10만원	△ 李 鍾 洋 (12기) 10만원
△ 李 景 學 (3기) 10만원	△ 李 洪 雨 (12기) 10만원
△ 孔 思 彥 (3기) 10만원	△ 李 相 京 (12기) 10만원
△ 梁 雄 鎖 (4기) 10만원	△ 李 萬 錫 (12기) 10만원
△ 孔 榮 文 (4기) 10만원	△ 鄭 錫 錫 (12기) 10만원
△ 李 時 雨 (4기) 10만원	△ 洪 鍾 健 (12기) 10만원
△ 趙 慶 來 (4기) 10만원	△ 申 東 潤 (12기) 10만원
△ 金 慶 柱 (4기) 10만원	△ 李 康 英 (12기) 10만원
△ 徐 東 烈 (4기) 10만원	△ 金 奎 植 (12기) 10만원
△ 嚴 奎 南 (4기) 10만원	△ 李 鍾 大 (13기) 10만원
△ 成 慶 麒 (5기) 10만원	△ 張 德 根 (13기) 10만원
△ 李 錫 稷 (5기) 10만원	△ 柳 起 宇 (13기) 10만원
△ 李 炳 箕 (5기) 10만원	△ 李 起 炫 (13기) 10만원
△ 張 鉉 鉉 (5기) 10만원	△ 太 安 民 (13기) 10만원
△ 全 潤 洙 (5기) 10만원	△ 安 鍾 軒 (13기) 10만원
△ 李 俊 洙 (5기) 10만원	△ 조 건 한 (13기) 10만원
△ 崔 善 九 (5기) 10만원	△ 이 흥 덕 (13기) 10만원
△ 尹 鍾 九 (5기) 10만원	△ 金 鍾 得 (14기) 10만원
△ 尹 鍾 九 (5기) 10만원	△ 김 철 식 (15기) 10만원
△ 朴 容 稷 (5기) 10만원	△ 최 우 훈 (15기) 10만원
△ 李 天 泰 (5기) 10만원	△ 金 大 旭 (15기) 10만원
△ 李 源 泰 (5기) 10만원	△ 朴 得 圭 (15기) 10만원
△ 劉 鍾 根 (5기) 10만원	△ 金 德 成 (16기) 10만원
△ 姜 容 求 (6기) 10만원	△ 朱 昌 成 (16기) 10만원
△ 朴 善 泰 (6기) 10만원	△ 金 鍾 煥 (16기) 10만원
△ 李 根 求 (6기) 10만원	△ 고 흥 광 (17기) 10만원
△ 李 根 求 (6기) 10만원	△ 池 光 植 (19기) 10만원
△ 姜 尚 遠 (7기) 10만원	△ 趙 台 衍 (20기) 10만원
△ 鄭 相 逸 (7기) 10만원	△ 朴 京 石 (21기) 10만원
△ 鄭 求 錫 (7기) 10만원	△ 明 七 元 (21기) 10만원
△ 郭 石 棟 (7기) 10만원	△ 김 철 생 (29기) 10만원
△ 金 國 璋 (7기) 10만원	△ 박 성 기 (29기) 10만원
△ 金 道 植 (8기) 10만원	△ 송 창 식 (29기) 10만원
△ 金 道 喆 (8기) 10만원	△ 오 한 두 (29기) 10만원
△ 鄭 松 采 (8기) 10만원	△ 이 안 수 (29기) 10만원
△ 張 正 孝 (8기) 10만원	△ 이 일 식 (29기) 10만원
△ 金 鍾 泳 (8기) 10만원	△ 정 남 범 (29기) 10만원
△ 朴 應 榮 (8기) 10만원	△ 김 경 호 (29기) 10만원
△ 田 順 培 (8기) 10만원	△ 최 삼 철 (29기) 10만원
△ 文 원 술 (8기) 10만원	△ 홍 삼 기 (29기) 10만원
△ 文 福 範 (9기) 10만원	△ 이 규 복 (29기) 10만원
△ 崔 明 永 (9기) 10만원	△ 이 규 두 (29기) 10만원
△ 金 一 洙 (9기) 10만원	△ 나 충 열 (29기) 10만원
△ 金 千 鳳 (9기) 10만원	△ 심 재 광 (29기) 10만원
△ 金 林 相 (9기) 10만원	△ 오 승 순 (29기) 10만원
△ 林 炳 善 (9기) 10만원	△ 홍 석 중 (29기) 10만원
△ 高 仁 珪 (9기) 10만원	△ 김 원 규 (29기) 10만원
△ 金 完 洙 (10기) 10만원	△ 심 승 환 (29기) 10만원
△ 金 潤 珠 (10기) 10만원	△ 최 동 철 (29기) 10만원
△ 朴 根 燁 (10기) 10만원	△ 김 성 전 (29기) 10만원
	△ 김 영 분 (29기) 10만원
	△ 오 영 권 (29기) 10만원
	△ 윤 주 혁 (29기) 10만원
	△ 홍 재 목 (29기) 10만원
	△ 이 장 근 (29기) 10만원
	△ 김 장 천 (29기) 10만원
	△ 金 元 圭 (30기) 10만원
	△ 康 性 鎬 (30기) 10만원

5次年度 理事會 開催

▷ 日時 : 7月 15日 18時

▷ 場所 : 空軍會館

▷ 審議事項

▶ 總同窓會 5次年度 事業計劃을 審議하기 위해 지난 7월 15일 18시에 공군회관에서 理事會를 開催하였다.

▶ 審議事項

1. 會務報告

○ 基金積立現況(1997年 6月末 現在)

- 1次年度 992,000원
- 2次年度 21,302,000원
- 3次年度 11,900,000원
- 4次年度 23,113,000원
- 計 57,307,000원

※ 會員의 平生會費 및 任員 年會費 全額積立

2. 4次年度 決算報告

○ 特別會計(積立金)

- 任員會費 5,600,000원
- 平生會費 11,900,000원
- 贊助金 500,000원
- 利子 2,949,000원(세금공제)
- 其他 2,164,000원(전년도 미수금)
- 計 23,113,000원

○ 一般會計(運營費 支出 內譯)

- 배지 製作費 3,240,000원
- 會報 製作費 2,400,000원
- 會議費 1,800,000원
- 事務室 運營費 1,595,000원
- 은나래 婦人會祝儀金 300,000원
- 會長 活動費 968,000원
- 人件費 7,200,000원
- 記念植樹 1,000,000원
- 優秀生徒表彰費 300,000원
- 計 18,803,000원

※ 會長特別 贊助金 및 廣告費로 充當

3. 5次年度 事業計劃 및 運營費(支出豫算)

- 會報發刊 年 4회 6,400,000원
- 空士優秀卒業生 總同窓會長賞 300,000원
- 會看板, 旗, 弔旗 製作 850,000원
- 배지製作('96, '97 轉役者用) 720,000원
- 理事會, 總會 4,980,000원
- 謝恩會 開催 1,500,000원
- 優秀子女獎學金 3,000,000원
- 人件費 9,600,000원
- 郵便料 480,000원
- 電話料 480,000원
- 行政用品費 1,200,000원
- 事務室 運營費
- 封套製作費 450,000원
- 豫備費 1,000,000원
- 計 30,960,000원

4. 5次年度 收入 豫算

- 會長 特別 贊助金 5,000,000원
- 5期 支援金 5,000,000원
- 廣告 收入 12,000,000원
- 其他 贊助金 9,280,000원
- 計 31,280,000원

母軍 · 母校 · 短信



서산기지 전력화 기념행사

공군은 6월 18일 상오 金泳三 大統領의 印석하에 金東鎭 국방부 장관, 尹炳南 합참의장, 李光學 공군참모총장, 국방부 및 各軍 관계 장성과 부대장병이 참석한 가운데 공군 최강의 전력을 확보하고 있는 서산기지의 전력화 기념행사를 가졌다.

KF-16 시험비행 權熙晚 中領

6월 30일 11시 KF-16 국산화 1호기 1대가 우렐찬 폭음과 함께 남부지역 공군 모기지를 이륙 5분간의 긴 잠란 시험비행 동안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던 관람객들은 비행기가 환주로에 무사히 안착하자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냈다. 환호하는 관람객들 사이에서 시험비행 조종사 권희만 중령은 비로소 출산을 마친 산모의 심정으로 애기를 바라보면서 환한 미소를 지었다.



지난 결프전에서 100% 가까운 임무 완수와 다양한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한 F-16 전투기의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 KF-16은 지금까지 12대 조립 생산 36대가 이미 공군에 인수되었고 3단계 국내 면허 생산으로 72대가 '99년 말까지 인수될 예정이며 총 예산은 3조 8천억원이 소요된다.

女權伸張功勞 大統領 表彰 受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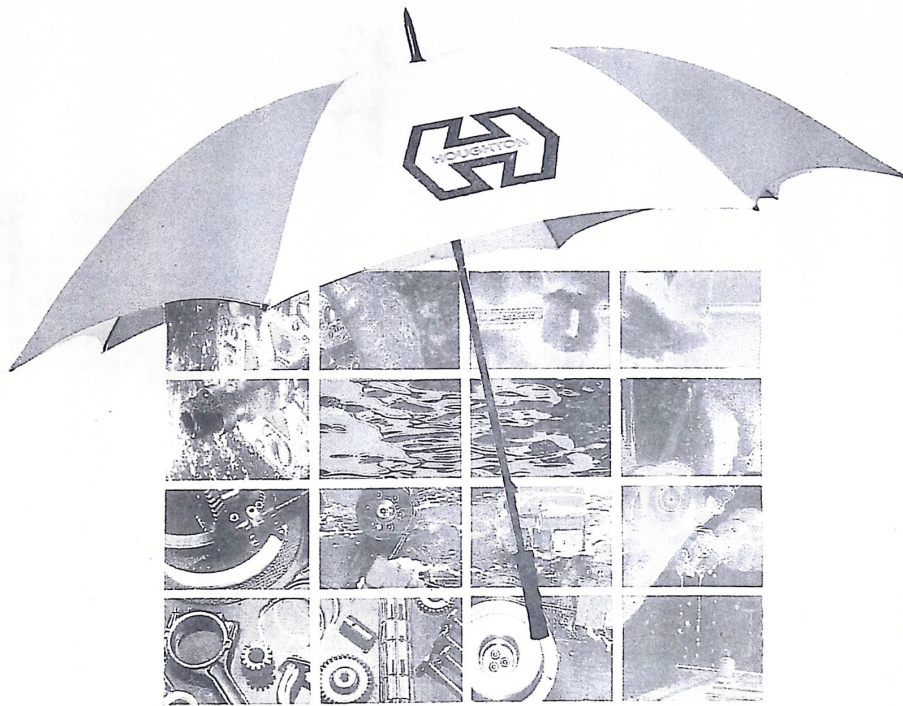
지난 7월 3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회 여성주간 기념 전국대회에서 이기현 교장(중창), 한기성 여훈교육관(대위), 한정원 여성도는 공사를 대표하여 명예의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창군 이래 육·해·공군사관학교 중 처음으로 여성도를 선발한 것은 남녀평등과 여성신장에 기여한바 그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수상하게 된 것이다. 금년에 입교한 19명의 여성도들은 남생도들과 어깨를 나란히 생도생활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ISO9001

환경마크 획득

- 절삭유 · 압연유 · 방청유 · 열처리유 · 산업용 윤활유
- 신선, 소성 가공유 · 특수페인트 · 금속 코팅제
- 세척제 재이용 시스템 · 폐수처리 시스템
- 세척제 · 표면처리제 · 베벨드글라스
- 기타 금속가공에 관련된 케미칼



130년 동안을 지켜왔습니다.

기술을 보살피는 보다 앞선 기술력- 한국하우톤

금속가공유와 특수유 분야에서 130년을 한결같이
 세계 최고의 품질과 그 명성을 지켜온 하우톤
 하우톤의 역사는 인류 기계문명 발전의 역사입니다.
 보다 앞선 기술력으로 생분해성과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신기술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株式 韓國 하우톤
會社

TEL:(02)3772-6600(代)



姜 容 求(공사 6기)
· 總同窓會事務總長

1. 序 論

사람마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같은 사물을 앞에 놓고 定義를 내릴 적에 의견이 서로 다르다. 나의 의견이 독자 여러분에게 잘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는 理政의 調和를 찾아보자는 점에서 이질적인 것을 하나의 目的 指向의 인 면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인간사회요,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한다면 아마도 소신을 달리 한다는 것이 도리어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 우리에게 획일성이 주어 진다면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요, 토론이 없다면 새로운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2천년대하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같이 생각되는 분도 있었지만 금년이 1997년이고 보면 불과 3년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가 남의 사무실을 들어가 려면 반드시 노크를 한다. 노크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사무실을 방문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한 사람만이 노크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2천년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2천년대에 들어서서가 아니라 2천년대를 들어서기 전에 노크하는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다. 3년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2천년대를 어떻게 정의하고 준비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화시대를 맞아 여기에 앞장 서는 시민의식을 갖추어 나갈 때 세계화는 이룩될 것이다. 세계화는 일대화, 합리화, 일체화, 한국화 그리고 인간화이므로 세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5 가지를 해결하는 시민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2. 文化의 이동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인류 문화의 중심은 이동을 한다. 서울 4대문 안에 있던 조선조 문화는 많은 분야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 갔다.

고대문화의 발상지는 중국, 인도, 태국이지만 오늘에 있어서는 거의 考古學者들만이 찾아가는 지역의 개념으로 바뀌었다. 바로 이 문화의 중심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地中海쪽으로 가서 그리스文化, 로마文化를 형성했다가 다시 이동을 했다. 독일, 불란서, 이태리, 영국을 중심으로 한 구라파로 이동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文化의 꽃을 피웠다. 이곳에서 여러 가지 사상이 생겨났고 특히 영국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물질문화의 새로운 거점이 됐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구라파 문화의 중심은

2000年代 韓國의 位相

영원히 여기에 머물지 않고 다시 이동해 갔다. 어디로 이동했느냐 하면 미국과 일본이라는 北太平洋 전으로 옮겨져 갔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그 이동시기를 2차대전 이 끝날 때부터라고 한다.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이 세계를 리더하고 있는 힘의 영향은 경제와 첨단 과학기술이었고 이것을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 東洋時代의 到來

그러면 북태평양전에서 한참 번창하고 있는 문화의 중심이 2천년대에는 동양쪽으로 이동해 온다고 많은 학자들이 예고했다. 서양의 문화는 황혼을 맞고, 동양의 문화는 새벽을 맞아 동양의 시대가 펼쳐진다는 것이다.

그 변화를 강조한 대표적인 학자가 미국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이다. 토플러는 '70년도에 미래의 충격(Future Shock)을 썼고, '80년도에는 제3의 물결(The Third Wave) 그리고 '90년도에는 권력의 이동(Power Shift) 그리고 최근에는 새로운 문명의 창조를 저술했다. 이 책들의 주제는 변화이다.

가. 제3의 물결

인류의 전체사회가 갑작스럽게 어떠한 새로운 예기치 않았던 변모에 따라 인류사회에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느냐 하는 것이다.

제3의 물결에서 보면 인류의 역사는 정착된 농경사회에서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다. 그 기간은

기 때문이다.

셋째, 同時化이다. 공무원, 군인, 근로자, 학생의 출퇴근 시간이 똑같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는 러시아워가 생겨 교통체증이 생긴다. 그뿐만 아니라 텔레비전도 골드아워가 생겨 이때는 시청률이 높아 중요한 프로그램보다는 광고선전을 많이 해서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끼친다.

넷째, 都市集中化이다.近代化 과정에서 고품향을 도시에서 보니까 농촌인구가 도시로 몰려왔다. 그래서 전부 도시에 살게 됐다. 서울은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인 천만이 넘게 산다. 농촌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아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까지 모여 살았다. 긴 아루개 하면 그 집안의 내력을 훤히 알게 되고 증적으로도 알고 휘적으로도 알았다. 처가는 어디고 형제간은 누구며 삼촌은 누구고 또 알았는데 도시에 모이면 사람이 모여 살면서도 실제로 깊숙이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을 匿名的 存在,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른다. 그러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수평으로 연결되지 않고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상하관계, 이해관계만 따지다 보니까 인정이나 인간미가 없다.

다섯째, 大型化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것을 선호한다. 집도 크고 자동차도 크다. 특히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개발정책을 대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수행해 경제성장의 속도는 엄청나게 빨랐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니 동양의 4

각종 비리,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어 또다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소위 한국병이라는 각종 범죄의 치유방법은 빈부의 격차와 박탈감을 줄여내는 것이다.

여섯째, 中央軸權化이다. 권력구조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전중추가 전부 모여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할 것 없이 태반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전국의 땅 60%가 서울사람 것이다. 우리 호주머니에 유통되는 현찰의 70%가 서울에 있다. 압에 걸려도 서울에 가야만 고친다. 서울의 면적은 대한민국 면적에 0.6%밖에 안 되는 좁은 공간에 사회적 가치는 70%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산국가일수록 심하다. 특히 북한은 권력구조가 100% 평양에 있다. 김정일의 말 한마디면 2천4백만 명의 눈동자가 좌우로 움직인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공산국가가 허물어진 것은 중앙집권적 사회가 허물어진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변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응해서 사회적 권력구조가 지방으로 분산되어야 국가가 발전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우리사회도 지방자치를 실시하여 중앙에 편중됐던 권력을 지방에 분산하고 있는 것이다.

나. 知價社會

또 일부에서는 지가사회가 온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산업사회는 막을 내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산업사회는 막을 내리고 지가사회 시대로 돌입한다는 논리에 의하면 선진국으로 간다는 것은 누가 먼저 지가사회에 골인하느냐에 달렸다.

대단히 길다. 이것을 제1의 물결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산업사회를 제2의 물결이라고 했다. 다가오는 미래의 정보사회는 제3의 물결인데 제2의 물결인 산업사회는 제3의 물결인 정보사회에 의해서 허물어지고 자동화 사회가 온다고 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제2의 물결은 다음 6가지로 개념짓고 있다. 첫째, 規格化이다. 우리의 가구를 보면 규격화돼 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VTR, 자동차 등은 규격화됐다. 각 기업체에서 제품을 단시일 내에 다량생산하여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제품을 규격화시켰던 것이다.

둘째, 專門化이다. 오늘날을 가리켜서 자격증시대라고 한다. 비전문인은 어디서나 짚 수가 없는 사회가 돼버렸다. 우리의 정치가 잘 안되는 것은 정치인들 중에 정치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적

마리 籠 중 하나라고 세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그런데 30여 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생겨났다. 가진 자와 못가진 자, 못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가진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 비정상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것이다. 이 비정상적인 방법이 바로 범죄로 나타나는 것이다. 남의 것을 훔치고, 핏고, 죽이고, 잡아다 팔아먹고, 요즘의 각종 범죄는 격차와 박탈감에서 오는 사회의 현상이다. 소위 지존파, 막가파, 교수의 부모살해 행위는 막탈감에서 오는 죄개심, 증오심, 왜곡된 가치관의 병리현상에서 저지르는 범죄이다.

지난 '90년 10월 13일 노태우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현재까지 범죄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랄하고 잔인한 범죄가 발생할 뿐 아니라

지가사회 시대로 돌입한다는 논리에 의하면 선진국으로 간다는 것은 누가 먼저 지가사회에 골인하느냐에 달렸다.

이 지가사회는 일본 동경대 사회학자 「사카이」 교수가 주장한 것으로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다. 하나는 知識, 둘은 經驗, 셋은 感覺이라고 했다. 이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감각이 무엇이나 하면 지식은 능력, 경험은 역사, 감각은 산업이라고 했다.

지금까지는 선진국의 유형적인 자원에 두었지만 이제는 인간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 능력이 자원이 되고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高人的資源을 가진 나라가 선진국이 된다는 것이다.

몇 년 전 중동의 걸프전이 끝난 후 油價가 하락하고 있는데 일본은 고인이 안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에서 석유

(6면에서 이음)

가 만나기 때문이다. 유가가 떨어지면 석유회사가 망하지 일본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양만산업이 발달하여 뱀장어가 많이 생산되어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사간다. 앞으로 우리의 양만산업이 흥하나 말하느냐는 일본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 일본 사람들이 사다 먹으면 걱정 없고 안사기엔 걱정이 되는 것이다. 산미국가 쌀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지 사다 먹는 사람은 걱정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런 역사적인 말을 한다. 산유국가의 기름은 일본의 석유창고, 한국국의 뱀장어는 그들의 반찬창고, 산미국가의 쌀은 저희들의 양곡창고 그러므로 언제든지 일본 사람이 먹어주면 그 사람들은 좋아하고 안 먹어주면 슬퍼한다고 하는 이런 식의 얘기는 그 물질이 어디에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촉감이 좋고 색상이 밝고 휴대하기 편리한 것을 선택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감각에 어느 정도 충족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면에서 산업은 좌우될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지가사회체제로 정비해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4. 2千年代를 리더할 민족

삼삼한 바와 같이 동서학자들은 다가오는 21세기를 나름대로 정의하고 있지만 그 미래시대를 어느 민족이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연구한 결과 儒敎文化를 경험한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유인족은 농경사회의 중심은 종자였고 산업사회의 중심은 기계, 즉 로봇이나 컴퓨터이지만 다가오는 정보화사회는 그 중심이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학을 다루었던 유교가 중요하다는 것

능이 강화돼서 능이 발달하고 머리가 좋아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젓가락질을 어릴 때 시작해서 일생동안 하다가 밥숟가락 놓을 때 젓가락도 같이 놓는다. 이때 능이 발달한다는 것이다.

서독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세계 기능올림픽에서 3연패 하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어 선진국이 됐고, 일본도 서독을 본따서 세계 기능올림픽에서 3연패 하여 경제대국이 됐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9연패를 했지만 왜 이 모양인가. 그것은 정치가 안정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미국 교육평가원이 실시한 수학, 과학 국제학력평가에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생이 1위를 차지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매년 하버드 대학의 졸업식 때 수석은 한국 사람이 차지한다고 한다. 이렇게 한국 사람의 머리가 좋은 이유는 미국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인자가 우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면 잠미가 된다. 7, 8월이 되면 대지를 녹일 듯 태양이 내리쬐면 우리는 유가를 내어 내친수려한 강이나 바다에서 쉬다온다. 더위에 지치면 가을을 동경한다. 결실의 가을이 왔으면 하면, 찬바람의

옷깃을 여미게 하고 청엽들이 오색단풍으로 물들어 한잎 두잎 낙엽이 되면 침춘남녀는 낙엽을 밟으며 가을을 느낀다. 이때 농부들은 여름에 밭을 갈아 준 오곡을 추수하면 들안은 빈터가 되고 찬바람이 몰아오면 삭막하기 이를 바 없다. 이렇게 쓸쓸할 바야흐로 겨울이 왔으면 좋겠어? 하루저녁 거그러니 온 천지가 백색으로 물들고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면 젊은이들은 추억을 남긴다고 체온을 맞대고 밭지국을 남기며 보드득 보드득 걸어간다. 이러한 환경이 머리를 좋게 한다는 것이다.

5. 結 論

이제 21세기를 리더할 수 있는 민족으로 각광을 받게 된 우리는 희망과 자긍심을 갖고 총체적 위기라는 이 난국을 극복하고 세계화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선진화의 미래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갖추어 나갈 것인가 또한 전진을 장애하는 저해요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본문에서 제시한 여러 나라 석학들의 미래에 대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으로써 다가오는 21세기의 한국의 위상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과거 5천년 역사는 가난과 슬픔으로 점철된 암울한 역사였다면 다가오는 미래는 지구촌의 중심적 위치로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Korea가 된다는 희망적이고 진취적인 미래가 보

우리의 역사는 유구한 5천년이다.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는 지구상 190여개 나라 가운데서 다섯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한다. 경험적인 면에서도 선진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존재하느냐 하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그 유형적인 물질의 공간이동이 문제가 됐지만 이제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Biotechnology가 무엇을 부하느냐 할 것 같으면 무슨 자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 날아다니는 오리와 집에서 기르는 오리는 맛이 다르다. 그러니까 두 마리의 오리 맛을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연오리와 집오리의 유전공학적 방법을 통해서 제3의 오리를 만들었더니 그 맛이 굉장히 좋다는 것이다. 거기서 알을 뽑아냈더니 그 알의 맛이 좋다는 것이다.

일본의 「고사까」 교수는 그와 같이 해서 오리알을 생산하고 있다. 보통 오리알 한 개가 20엔인데 그 교수가 만들어낸 오리알은 500엔이다. 25배가 더 비싸고 맛이 좋아 없어서 못 판다고 한다. 이것은 무슨 자원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경험이다. 경험은 역사라고 했다. 역사 속에는 달고 쓴 경험이 많이 있다. 이 많은 달고 쓴 경험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양분, 즉 에너지가 된다.

그러면 우리의 역사는 유구한 5천년이다.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는 지구상 190여개 나라 가운데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한다. 경험적인 면에서도 선진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을 감각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나 하면 산업은 물건을 생산하는 거다. 물건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본래적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부수적 기능이다. 볼펜을 만들 적에 길쭉이 생긴 볼펜하고 동글게 생긴 볼펜을 놓고 볼 적에 길쭉하든 동글든 볼펜으로서 필기용구라는 본래적인 기능은 똑같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이다. 실로 우리에게 대단한 朗報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유교문화를 경험한 모든 민족이 다 21세기를 리더해 나갈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비록 유교문화를 경험한 나라라도 다음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첫째, 한자를 사용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예외 없이 한자성명을 가지고 있다. 들

그럼 왜 인자가 우수한가? 그것은 한반도의 風土가 좋아서 그렇다는 것이다.

지난 서울올림픽 당시 외국 선수 임원들이 김포공항에 내려 우리의 가을 하늘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순간대면 금방 파랑 계 물들 것만 같은 푸른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 이구동성으로 Beauty Sky!하고 탄성이 나왔다. 그리고 올림픽 공원에 위치한 속

이제 21세기를 리더할 수 있는 민족으로 각광을 받게 된 우리는 희망과 자긍심을 갖고 총체적 위기라는 이 난국을 극복하고 세계화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소로 가기 위해 유유히 흘러가는 한강변의 88도로를 달리면서 또 놀랐다. 저렇게 맑은 강이 있는가 Wonderful River!를 외쳤다.

그뿐만이 아니다. 춘삼월이 되면 산동선을 붉게 물들이는 진달래가 피고 보도가에는 노란 개나리 그리고 살구꽃, 복숭아꽃, 벚꽃이 만개하며 집안에는 목련화가 핀다. 다음에 라일락이 떨어지면 녹음이 짙어지고 5월이 되면 아카시아꽃이 향기를 내뿜고 6월

창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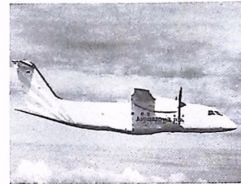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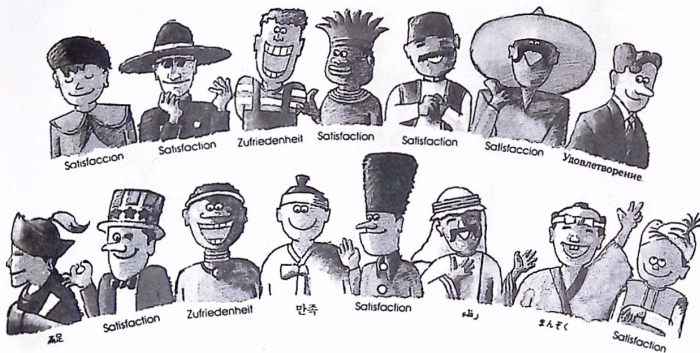
특히 개방화, 세계화의 시대를 맞아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의지와 역량을 성숙시켜야 하겠다. 나라를 사랑해 왔고 또 조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2천년대에 진입하는 세계화에 걸맞는 시민의식을 가져야 하겠기에 이 글을 썼음을 부연해 둔다.

(3면에서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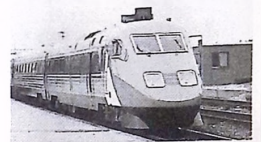
運營費 贊助한 분들

- 朴 鎔 泰 (會長) 5,000,000원
- 新 星 會 (5期) 5,000,000원
- 成 甫 慶 (5期) 1,000,000원
- 李 炳 稷 (5期) 1,000,000원
- 韓 炳 淳 (5期) 1,000,000원
- 李 源 荀 (5期) 500,000원

기술혁명  미래창조



항공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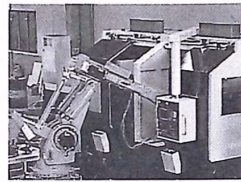
철도차량



굴삭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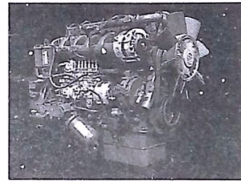
지게차



FA/공작기계



방위산업



디젤엔진



신소재

세계인의 의견일차-
제품, 품질, 첨단기술력

"만족합니다"

대우중공업은 전세계에 "완벽한 품질과 기술"로 통합니다.

국내제일의 중공업체로 확고한 신뢰를 쌓아온 대우중공업 -
이제 대우중공업은 지구촌 곳곳에서
품질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항공, 조선산업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인
모델과 기술개발은 물론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세계일류기업
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만족한 선택을 원하신다면 지금 곧
대우중공업과 만나십시오.
대우중공업은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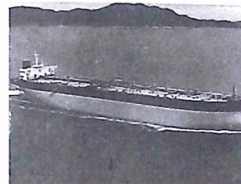
상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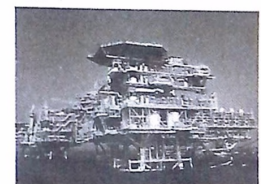
중장비



국민차



조선산업



플랜트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남대문로 5가 541번지 (대우센터 20층) 전화(02)726-3114 인천: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6번지 전화(032)760-1114(대)
안양: 경기도 의왕시 삼동 462-18 전화(0343)60-1114(대) 창원: 창원기계공업단지 A-6 전화(0551)80-1114 군산: 전북 군산시 소룡동 1589
전화(0654)469-3114(대) 옥포조선소: 경남 거제시 아주동 1번지 전화(0558)680-2114(대)

空軍, 33年만의 告別

— 轉 役 回 顧 —

오늘 우리는 國家防衛의 干城으로 오랫동안 몸담아 왔던 정든 軍生活를 마무리 짓고 空軍 여러분과 석별의 情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33年前 우리는 무겁고도 많은 연료와 폭탄을 滿載하고 空軍士官學校에서 이륙하여 이제 그 所任과 職分을 다하고 석양을 등진 채 긴 환주로에 착륙하면서 먼저 깊은 감회와 아쉬운 마음으로 내일을 위한 오늘을 인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아침 새벽 여명을 헤치면서 새로운 기대와 도전의 나래를 펴고 九萬里 空曠으로 솟아올라 경이로움과 긴장의 哨飛飛行을 할 때면, 어디서부터인지 서서히 어두움이 걸리고 자욱한 안개 속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들어내던 내 강토, 내 겨레, 바로 우리의 祖國이 거기에 있었습니니다.

우리는 그 祖國이 있었기에至高한 愛國과 忠誠心으로 信念의 鳥人이 되어 祖國의 평화와 자유를 지키고자 祖國 하늘에 한없는 情熱을 바쳐왔습니다.

우리들의 일터였던 空軍과 하늘은 때때로 환희와 기쁨의 샴을 주기도 했지만 때로는 죽음과도 같은 큰 시련과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우리를 사양하지도, 거부하지도, 마다하지도 않고 흡수하여 관대하게 포용하였습니다. 우리를 낳아 키워준 祖國과 空軍과 하늘에게 맨 먼저 최고의 敬愛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발랄과 좌절의 시절이었던 60년대 초에 그 어려운 사관학교를 졸업하였고, 아무나 할 수도 없는 발간 마후라 職關操縱士가 되어 지금까지 죽지 않는 奮勇의 不死鳥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將軍의 깃발을 휘날리며 큰 部隊와 많은 部下를 다스리기도 하였습니니다. 그래서 指揮官의 위용과 권위를 더 높게 싶어주었으며, 부하들에게 베풀고 아람으로 통솔하여야 함을 보다 넓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고마움은 그 동안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일선 職關要員 여러분에게 평소 늘 말하였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職關操縱士들은 땅에서 하늘로, 순간에서 순간으로, 삶과 죽음을 넘나들면서 祖國을 위해 자신들을 너무 많이 희생하는 그야말로 보통 사람들이 보통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國家의 보배」들이라고 누구에게나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방지원 요원들에게는 “機械는 誠實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성실하게 대답하여 준다.”라고 따뜻한 격려를 하였습니다. 또 어떤 젊은 軍人들에게는 「치밀한 個性, 대담한 野性, 불굴의 勇氣, 강인한 體力」를 가진 멋진 군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도 하였습니니다.

전투조종사, 방공관제사, 방공포장병, 정비무장통신사 그리고 또 다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전투요원에게 그 값진 노고에 대해서 갈채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에게 요구하면서 신신당부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세기에서 21세기를 향해 더 높은 理想을 가지고 내일의 막강한 精銳空軍을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막강한 정예공군을 지금보다 더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 이 시대는 더욱 正義롭고 道徳적인 순수한 참 軍人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순수한 참 軍隊를 가꾸려고 정의와 도덕의 거름을 한 줌 뿌리고 갑니니다.

앞으로 후배 여러분은 우리보다 더 많은 거름을 뿌려주시십시오.



襄基俊(공사 12기)
· 삼성물산 고문

그래서 現代人이 앓고 있는 큰 질병인 本質을 무시한 너무 세련된 技巧과 正道보다 편법을 우선하는 편리제일주의, 그리고 그칠 줄 모르는 탐욕스러운 소유욕이 空軍文化를 지배하지 지켜주시길 본래 軍人의 참모습을 지켜주시시오. 그렇게 해서 건전하고 차원 높은 위대한 空軍을 이룩하여 주십시오.

軍人家族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生死苦樂을 같이 했던 軍門을 떠나면서 軍人들만이 가질 수 있는 名譽와 自誇心 그리고 戰友愛를 소중히 간직할 것일니니다. 그리고 지축을 흔들는 거대한 爆轟과 새파란 불꽃으로 새벽의 찬 공기를 가르면서 솟아오르는 우리가 아끼고 사랑했던 航空機, 그리고 용맹스럽고 대범한 독수리, 바로 그 성난 독수리들을 여러분과 함께 오래오래 기억할 것일니니다.

1992년 9월 29일 계룡대 연병장에서

서울 四大門 設立 意味

나라에는 역사가 있고, 정부에는 정책이 있으며, 국민에게는 소망이 있다. 소망이 정책을 반영되고, 정책은 역사의 흐름에 맞추고, 역사가 소망의 편에서 서면 平和와 繁榮과 安定을 이룩한다. 1329년 7월 왕위에 오른 李太祖는 善政을 베풀어 자손만대에 태평성대를 누리기 위해 1394년 11월 29일 都邑地

를 開京에서 漢陽으로 옮겼다. 대자연의 법칙인 東西南北과 五行인 金木水火土의 원리를 적용, 위치를 배열하고 天理를 좇아 人和를 도모하고자 四大門과 鐘閣을 만들었다.

약한 사람을 돕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며, 험처 동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불날에 싸이 돌아서 시일이 지나면 무성해지

는 理致와 같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뜻으로 東便에 興仁門(東大門)을 건립했고, 不義를 미워하고 잘못을 보면 부끄러워 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행동에 옮겨 자신은 그와 같은 잘못이 없도록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西便에 敦義門(西大門)을 세웠으며, 사람은 누구나 나라에 忠誠하고, 父母

에 孝道하여 어른을 恭敬하고 兄弟間에 友愛하며, 총있는 사람을 받드는 마음을 갖되 이 道理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뜻에서 남쪽에 崇禮門(南大門)을 세웠다.

그리고 사람은 때와 장소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있으며 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다. 이를 분별하는 지각이 있어야 한다. 智慧는 냉철하여 깨끗한 마음을 통해서 밝혀지므로 北쪽에 弘智門을 세웠다. 仁義禮智信을 五常이라 하

여 선비가 갖추어야 하는 다섯 가지 德目이다. 그 중에서 信은 기본이므로 信을 中央에 配置하고 움직이는 소리에 탐아 파급 효과를 최대한 거두고자 善信閣인 鐘閣을 세웠다.

日帝가 우리 民族魂을 달살코자 四大門의 이름을 바꿨지만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로 이어지는 역사와 함께 조상의 거룩한 얼을 새겨 大門들의 이름을 본래대로 되찾아바른 民族正氣를 세워야 한다. <編輯室>

행복은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절대가치이다. 특히 부부아말로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

- ② 집안에서 고향을 지르지 말 것.
- ③ 상대의 흠을 보지 말고 실수를 말하지 말 것.

夫婦 十戒命

이차 행복을 창조하는 근본이기 때문이다. 행복한 가정, 즉 부부의 행복을 위해 추방해야 할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소유의 관념을 추방해야 한다.

인생은 만남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그 많은 만남 가운데 가장 귀한 만남이 부부의 만남이다. 그것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행복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존경할 때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부부생활을 할 수 있다. 미국의 가정 상담자인 앤 랜더스는 행복한 부부생활을 위한 夫婦 十戒命을 제시하고 있다.

- ① 동시에 화를 내지 말 것.

- ④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 것.
- ⑤ 아픈 곳을 읊지 말 것.
- ⑥ 결혼식 날의 사람을 잊지 말 것.
- ⑦ 먼저 사랑하고 양보할 것.
- ⑧ 숨기는 일이나 거짓말을 하지 말 것.
- ⑨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말 것.
- ⑩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간의 우의를 돈독히 할 것.

둘째, 부부는 남남이라는 생각을 추방해야 한다.

부부는 단순히 육체가 하나가 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인격과 삶이 하나가 됨을 말하는 것이다. 남편이 아내 삶의 일부분이 아

닌 것처럼 아내도 남편 삶의 일부분이 아니다. 남편의 전(全) 삶이 아내가 되어야 하고, 또한 아내의 전 삶이 남편이 되어야 한다. 부부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바탕을 두고 결합하여 서로에게 자기를 완전히 줄 수 있어야 진정한 부부가 될 수 있다. 아내를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계 몸과 같이 한 때 행복한 부부생활이 이루어진다.

셋째, 권태로운 생각을 추방해야 한다.

권태는 사람을 죽이는 부부생활의 원수이다. 권태는 파멸의 큰 요소이고, 권태는 인간의 썩은 부분이며, 권태는 인간을 침투해 만든 습관이다. 그리고 권태는 죽음의 진흙수렁이다.

파스칼 글리는 그의 저서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는 책에서 권태를 추방하는 방법으로 부부는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가장 안에 지상의 천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언어 구사를 많이 해야 한다고 했다. 「미안해요, 편찮아요, 좋아요, 훌륭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編輯室>



金永柱(공사 20기)
· 空士博物館長

韓民族의 時代精神(下)

성리학적인 이상과 도덕사관을 바탕으로 조선왕조시대가 발전하였으므로 거대 중국의 중화문화권 안에서 우리 민족의 자존과 개성을 지킬 수 있었고, 수많은 내외의 환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역사·지리와 과학기술 등 총체적 민족문화역량을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조선후기에 와서 우리 민족의 사상계는 또다시 발전적 변화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주리파와 주기파로 나뉘어 학문논쟁을 계속하던 전통적 성리학과 지행합일(知行合一)을 내세우는 양명학 등에 대한 학문적 반성이 당시의 시대상황과 결부되어 일어나게 되었으며 주자학을 비판하고 본원유학의 정도(正道)를 찾는 실(實)의 학을 추구하는 학문사상이 대두되었는바, 실용 및 실사구시(實事求是)를 표방하는 실학사상이 바로 그것이다.

수기치인(修己治人)의 학으로서 실학은 유학의 근본사상으로 조선초기에는 건국의 이념적 배경을 이루었고 조선사회와 국가운영의 정신으로 작용하였으나 중기에 이르러서 불만

정치의 배경으로 교조화되고 생산적 사회기여의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점차 그 청신성이 상실되었다.

이러한 실학적 학문 추세는 주로 봉당정치의 와중에서 정치실권에서 배제되고 사회·경제적 변동으로 인해 신분위상이 약화된 실권 사대부계층을 중심으로 근기지방과 서울에서 먼저 일어났다.

따라서 실학은 조선후기 18세기를 전후하여 근기지방 및 서울에서 발생한 개인 유학적 사상체계로서 기존 성리학의 학문체계와 사유방식을 극복하고 민족내부의 발전 또는 사회개혁을 이루고자 한 사상조류 내지는 새로운 학풍으로 개념지을 수 있었던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체계적으로 정리된 실학사상을 조선후기 우리 민족의 시대정신으로 지목할 수 있는 것도, 수백년간 민족의 저변에 확산되어 뿌리내려 온 성리학 체계를 비판하려는 수용하고 개혁하려는 민족내부의 자발적 의지 때문이다.

우리 민족의 저력이 고대 무척신앙과 불교사상, 유학 및 성리학 단계를 지나면서 깊이와 폭을 더해 왔으며, 마침내 세계사적 흐름에 발맞추어 시대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한다.

실학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8세기 전반 성호 이익을 중심으로 토지제도 및 행정기구와 기타 제도상의 개혁을 주장한 경제치음학과는 중세적 기본철서를 인정한 중봉주의 이념을 지향하였으며, 18세기 후반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변동에 부응하여 상공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상업업 유통 및 생산기구 일반, 기술혁신을 주장한 이용후생학과는 연안 박지원을 비롯한 북학사상가들이 주류를 형성하였다.

또한 19세기 전반 추사 김정희를 중심으로 한 실사구시학과는 경서 및 금석·전고(典故)의 고증을 위주로 민족·국가적식과 과학사상을 고양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17·18세기 이후 변화하기 시작한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는 19세기에 이르러 진보와 근대를 지향하는 의식전환을 통해 사상적인 틀을 완성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하였으며, 해민족 전체의 보편적 개념으로 발전해 가고 있었다.

인류가 중세 봉건사회에서 탈피하여 현대사회를 이루기 전 과도기적 생활형태를 근대로 규정할 때, 실학사상을 배태한 조선후기는 분명 근대화의 분기점이 아닐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실례로서, 우선 서구사회가 중세 기독교의 암흑시대에서 휴머니즘의 대각성을 통해 근대로의 전환을 모색했듯이 동양 전통적 지배사상을 형성한 유교사상이 바로 인간중심의 사상이라는 데서 유사점을 발견하게 된다. 실학운동은 곧 유교적 시대정신의 대각성운동이기 때문이다.

또한 과학기술문화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도 실학사상가들 특히 북학파에 의해 관심이 제고되었으며, 경제적 측면의 자본주의적 사회변동이 실학운동에서 비롯됨을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학은 당시까지의 지배계급인 양반사대부에 도전하는 새로운 세력으로서 중진계층의 성장을 가능케 하였으며, 이들은 근대적 상업사회와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계층으로 성장하였다.

이와 같이 실학은 조선후기를 맞이하는 전환기에서 우리 민족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당시의 시대상황 속에서 완전한 시행을 보지 못하고 반성과 개혁을 위한 주장에 그치고만 국면이 없지 않으나 전통적 왕조질서하에서 과감한 근대적 개혁과 발전을 모색하려는 민족내부의 움직임은 실학이 우리 민족

의 합리적 성장을 가능케 한 당대의 시대정신이었음을 입증해 준다.

이처럼 민족사적 시대정신인 실학사상은 중세적 사회체제를 내재적으로 극복하면서 근대사회의 발판을 구축함으로써 뒤이은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저력으로 작용하였다.

다시 말해서 서서동점(西勢東漸)의 거대한 물결을 일으키며 다가온 서구열강의 침입과 서학(西學)을 비롯한 신사상의 흐름에 혼동되어 휩쓸리지 않고 오늘날까지 한민족의 틀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우리 민족의 활력이 된 것이다.

왜양(倭洋)과의 통교를 단절하고 유교적 신분질서를 고수하려는 위정척사세력과 서양의 법률제도과 과학기술을 일정한 수준 이하로 부국강병을 이룩하려는 개화세력 그리고 당대의 사회개혁의지를 실현하고 신분제도를 타파하려는 농민세력 등이 시대상황에 따라 협력과 대립을 통해 통합되지 못하고 결국 일제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으나 계속된 항일의병투쟁과 구국계몽운동을 통해 민족해방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민족의 위대한 시대정신을 구현함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1세기의 정치지도자

世論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落後된 분야는 정치권이라고 한다. 15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4개월도 못 남긴 시점에서 생각할 뿐 일은 2천년대의 정치문화가 이끌어갈 지도자상은 어떤 상인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지도자상은 소신이 뚜렷하고 반대는 용납하지 않는 강력한 카리스마적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80년대 중반부터 일기 시작한 시민사회 태동은 산업사회 환경과 맞물려 새로운 지도자상이 부각됐다. 「프랑스 혁명사」를 저술한 「버크」는 역사발전 시각에서 지도자의 유형을 規定하고 있다.

5공시절 대통령을 한때 「나는 국민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고 호언한 예를 보더라도 정치지도자는 국민, 民族, 愛國에 서서쳐왔다. 多元化, 分權化, 市民社會化 등 발전하는 사회의 정치적 지도자는 국민을 대표하기보다 代理하게 된다. 왜냐하면 合理性이 神秘主義나 이데올로기를, 理性이

神性을, 客觀性이 主觀性을, 科學이 道德이나 規範을 壓倒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구성원 각자의 의식이 깨어나 그들 스스로 삶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므로 단순히 이들을 대리하고 대변하는 역할에서 책임을 다하게 된다.

市民 속에 묻혀 잘 보이지 않는 정치인, 역사나 하늘의 심판이 아닌 국민의 심판,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식이 아닌 「그대 욕구를 대변하라」는 사람을 속에서 2천년대 정치지도자를 찾아야 한다.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21세기는 지금까지 思考體系나 行動樣式으로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의 폭과 정도가 엄청나다. 때문에 未來指導者는 국제적 감각과 미래를 예측하고 판단하는 直觀力의 자질이 있어야 하고 그 변화에 轉向的으로 대처, 민족의 변명을 기하는 진정한 勝者의 모습을 담은 지도자라야 한다.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일어나며 뒤를 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는 정치지도자라야 한다.

(編輯室)

人間의 壽命

사람의 욕망 가운데 가장 큰 욕망은 아마도 오래 사는 것이다. 오랜 세월을 두고 宇宙의 秩序와 變遷에 적응해 온 인간은 리듬을 익혀왔다. 계절에 대한 적응의 리듬, 낮과 밤의 구별을 수면과 활동이라는 신체의 리듬을 만들었다. 呼吸은 分單位로, 心臟은 秒單位로, 뇌는 秒以下의 單位로 끊임 없이 적응하는 리듬을 타고 살아간다.

원래 사람의 수명은 1백20세라고 한다. 어느날 조물주가 동물들에게 수명을 하사했다. 소와 개, 원숭이를 불러 각각 30년의 수명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들은 뜻밖에도 저마다 필적 뒤었다. 소는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때로는 채찍을 맞고 사는데 30년의 수명은 너무 가혹하다고 눈물지었다. 밤낮으로 찾아대고 사는 개도 마찬가지였다. 조물주는 이들의 딱한 사정을 들어주었다. 그래서 소는 18년, 개는 12년, 원숭이는 10년으로 정해 주었다. 피가 많은 인간은 30년의 수명을 주겠다고 하니 매달리며 애원했다. 30년은 너무 짧습니다.

짐을 짓고 초목을 씹으며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둘 때 목숨을 거둬가면 어떻게 합니까. 조물주는 하는 수 없이 소와 개, 그리고 원숭이의 수명을 얻어 1백20살을 주었다. 30세가 되면 소와 같은 근면과 노고의 18년을, 그 뒤엔 천 목소리의 개와 같은 12년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후에 나머지 여생을 주를 꾸물한 열골을 하고 원숭이 모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諷刺的인 說話는 우리에게 많은 敎訓을 주고 있다.

지구상에 오래 사는 長壽村이 많이 있다. 이 장수촌의 생활조건을 보면 많은 공통점이 있다. 그 첫째는 물과 공기가 좋고, 둘째는 기후가 좋으며, 셋째는 노명은 즐기고, 넷째는 스트레스가 적고, 다섯째는 미식과 과식을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는 채소와 과일, 해조류를 많이 먹는 것이라고 했다. 이상의 것은 평범하고 특질없는 조건이지만 건강에 필요한 養生法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다.

(編輯室)



金容植 教授
· 法王佛敎大學

自然과 人生

우리는 대자연의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대자연은 우리 인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의 생활주변을 심층분석해 보자.

지하에는 수많은 수맥이 사람의 혈관과 같이 흐르고 있다.

땅 위에 흐르는 지표수는 우리 인류에게 유익한 '수기(水氣)'를 발산하고 땅 밑으로 흐르는 수맥에서 발산하는 '수기'는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 수맥이 발산하는 수기는 우리 인체에 극히 해로운 것이며 지하의 수맥이 흐르는 곳에서 우리가 생활하면 재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의 영향은 땅 위에서 사는 동식물 모두에게 해를 주며 수맥이 흐르는 곳에서 생활하면 건강이 나빠져서 인체에 질병이 발생하고 수맥이 흐르는 지점에 자라는 수목도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는다.

인생의 여러가지 질병은 생활의 보금자리인 집터에서 그것도 침실에서 90% 이상이 수기의 영향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고혈압 환자는 수맥이 흐르는 방에서 살면 증폭으로 떨어지며 수맥의 기가 병을 가중시키고 정상인도 그 방에서 오래 살면 혈압환자로 약화되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질병은 가정(집터)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필자의 친구 중에는 한 사람이 수년 전 어느 날 찾아와 만났는데 그 전과는 달리 팔다리를 제대로 못쓰는 상태로 되어 있어 왜 그러냐고 묻자 혈압으로 갑자기 신체의 부자유가 왔다고 해서 며칠 후에 그 가정을 방문하기로 약속하고 심박한 일이 있다. 거실의 쇼파에 앉자 '추'로서 수맥을 측정할바 수맥이 큰방으로 흐르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친구에게 큰방에서 어떻게 잠을 자느냐고 물었더니 수맥 흐르는 곳을 걸터서(열심자형으로)잔다고 하여 오늘부터는 수맥을 피해서 한쪽으로 자면 서서히 나아질 것이라 하였다.

그 후 그 친구는 그대로 실천하여 지금은 정상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일 그 친구가 필자를 만나지 못하고 그대로 생활하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먹고 그 방에서 수맥이 흐르는 곳에서 본시대로 생활하면 약과 치료의 효과는 보지 못하고 수맥의 기에 의하여 시달리다 결국 그 병으로 숨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을 이들이 이용하면 그 나이가 되면 그 수기의 힘에 의하여 또다시 그 병이 발생하여 신중하다 죽으면 유전병이라고 할 뿐 다른 방으로 생각해

보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곧 불가사의인 것이다.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여러분 중에는 알게 모르게 수맥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명가가 있고 흉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흉가에는 천하장사가 들어갈 살아도 죽음에는 손을 들어야 할 것이다.

부녀자들이 시집에 가서 아이들의 옷을 살 때 만원, 오천원을 덜주려고 아귀다툼을 하면서도 내가 살고 있는 집터가 '좋은가 나쁜가'하고 생각하는 부녀자는 만 명 중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입사한 두 사원이 있다고 하자.

각기 두 가정에서 기본 재산없이 생활을 하는데 한 사람은 저축을 해 가면서 무사태평하게 사는데 한 사람은 저축도 못하고 부채에 시달리고 살고 있다.

왜 그럴까?

전자는 수맥없는 집터에서 근면·성실하게 저축을 하며 다복하게 살고 있으며, 후자는 수맥이 흐르는 집터에서 각종 질병으로 병원비 등 생활비가 가중함으로 써 그 생활은 가족들이 사교판란을 겪으면서 살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 상처없이 병명도 모르고 아픈 사람, 이유없이 시름시름 아픈 사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집안에 수맥이 지나가는 곳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1년 전에 어느 마을에 출장갔을 때 네 식구가 한방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일이 있다. 그 가족은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네 식구가 한결같이 머리가 아프다는 것이다.

약을 지어다 먹어도 낫지 않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필자에게 자기 집에 가서 감정을 요구하여 그 집의 큰방에서 추(鍾)로 수맥 통과여부를 측정해 본바 공공로계도 네 식구가 같은 방향으로 베개를 베고 자는 곳으로 큰 수맥이 지나가지 않는가?

그 자리에서 바로 잡자리 방향을 다른 방향(가급적은 머리 동쪽)으로 자동록 지시하고 이후 일주일 후에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 후부터는 머리가 아프지 않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신비한 일인가? 수맥이 흐르는 곳에 집을 지으면 벽이 갈라지고 방바닥도 갈라지며 아파트 10층 이상도 벽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큰 수맥이 지나가면 산의 암석도 갈라지고 산사태도 나고 언덕도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들이 들산갔을 때 미륵산이나 지리산에 가서 잘 살펴보면 바위가 칼로 자른 것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수맥의 힘은 이렇게 위대한 것이다.

이러한 파괴력이 있는 곳에서 사람이 생활을 하면 우리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는 불문가지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의 보금자리에서 수맥의 피해로부터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수맥찾기에 수십 년, 연구와 경험으로 집터, 묘터의 수맥 흐르는 것을 살펴 각종 질병을 면하게 해준 곳이 전국적으로 부지기수인 것을 생각하면 학문을 배운 보람보다 더 큰 보람을 느낀다. 대자연의 섭리는 신기롭기만 하다.

그런데도 대자연에 순응치 못하고 험난한 인생항로를 걸어가는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다.

그러면 대자연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음양(陰, 陽, 日, 月, 星, 辰) 오행(金木水火土)과 이기(理氣)인 것이다.

음양이 서로 상배하여 반복하면서 빛을 냈다가 빛을 감추면서 오행으로 모든 동식물을 생성하고 이기의 계절변화 속에서 사물이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음양, 오행, 이기는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수맥에 대하여 언급

학생공부방에서도 수맥이 흐르는 지점에 책상을 놓고 공부하는 하면 집중력이 약해져 공부가 잘 안되는 것이다.

하기로 한다. 우리 일생은 출생하면서부터 질병과 싸우며 살고 있다.

그래서 인생이 질병과 싸워서 이기면 생존하고 질병과 싸워서 지면 죽는 것이다.

인생의 여러 가지 질병은 생활의 보금자리인 집터에서 그것도 침실에서 90% 이상이 수기의 영향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물론 지하에는 많은 수맥이 흐르고 있다. 같은 수맥 중에도 큰 수맥과 작은 수맥이 흐르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큰 수맥이 흐르는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수기의 피해가 크고 작은 수맥이 흐르는 집에서 살면 수기의 피해가 적을 것이다.

그리고 수맥이 흐르지 않는 집에서 사는 사람은 수기의 피해가 없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다. 수맥이 흐르는 방의 수맥선에 요(침구)를 깔고 취침을 하

면 기가 왕성한 신혼부부라 해도 임신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옛날에 자손을 못보는 집에서는 물을 바꾸어 먹으면 자손을 출산한다 하였다. 이사가면 자손을 낳는다는 말대로 자손을 출산하는 것을 필자도 여러 번 보았다.

수맥으로 인하여 자손이 절손되는 경우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다.

또 임신이 되었다해도 곧 유산된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출산을 하면 기형아를 낳게 되는데 이는 수기의 충을 받들므로 정상아가 못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방의 수기가 계속 충하는 힘에 의하여 복중(뱃속의) 태아가 기형아(뱃속병신)를 출산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약자는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것이다.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방 한구석에 큰 수맥이 흐르는 방에서 생활하면 수맥을 피하여 생활한다 해도 수맥이 발산한 수기를 방안에서 호흡하므로 임신이 안되는 것을 수차례 발견한 것이다. 수맥이 흐르는 지점에 침구를 깔고 자면 남녀가 부부행위를 즐기고 자유롭게 못하며 50대 남자가 조로하여 정력이 없어져 남성행위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주위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사람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학생 공부방에서도 수맥이 흐르는 지점에 책상을 놓고 공부하면 집중력이 약해져 공부가 잘 안되는 것이다.

학생공부방에서도 수맥이 흐르는 지점에 책상을 놓고 공부하는 하면 집중력이 약해져 공부가 잘 안되는 것이다.

부산에서 공부방 50개 객실을 내서 고시방을 차린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년 한 방에 서만 고시생이 합격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방을 같은 값으로 하숙비만 받았는데 그 후부터는 그 방으로 입실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을 벌여 하숙비가 올라갔다는 현실사례를 소개해 보는 것이다. 각 병원의 입원실에 특별히 사망자가 많은 병동이 있는 것이다. 그 병동 입원실에는 수맥이 흐르기 때문이다.

근래에 와서 다행히도 지하수 개발, 온천수 개발을 하면서 필자 등 수맥에 대한 상식을 책자, 대중강연, 매스컴 등으로 홍보하여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따라서 수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했으면 한다.

우리의 안전을 생각합니다.



시선을 낮추면 品格이 높아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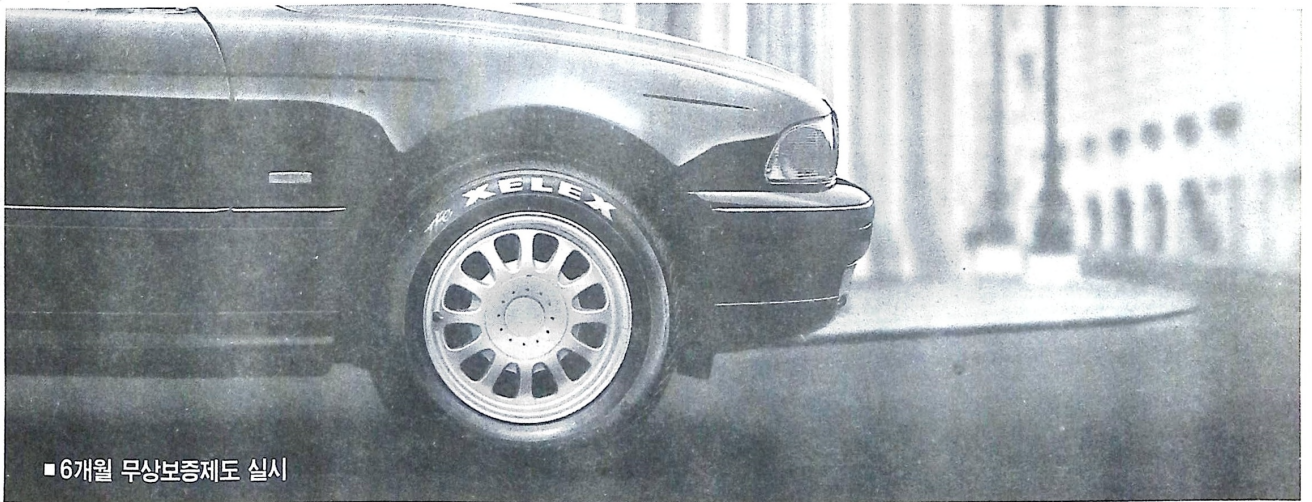
자동차만 바라보던 시선을 내려 보십시오.
혹시, 차의 격에 어울리지 않는 타이어를
잠착하고 계시지 않은지요?
최고 품격의 타이어 뉴세렉스를 만나시면 귀하의
품격까지 높아집니다. 기품이 흐르는 앞선 디자인
감각, 마음까지 전해지는 편안한
승차감 그리고 안전 제일
주의의 핸들링 성능.



뉴 세렉스는 다른 어떤
타이어와도 비교를 허락치
않는 최고 품격의 타이어
입니다.
최고의 타이어를 만든다.
이것이 뉴세렉스의 기본
정신입니다.

뉴세렉스 소형규격 판매 개시

New 고품격 타이어 —
세렉스



■ 6개월 무상보증제도 실시